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번역하며

정훈택*

1. 머리말

주기도문을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외우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그 의미도 명백하다. 두꺼운 성경과 복잡한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라 하더라도 모를 글자나 단어는 없다. 물론 짧은 기도에 포함된 깊은 의미는 두꺼운 설교집이나 신학 논문을 계속 써내도 남아 있을 정도로 쉽지는 않다. 그러나 주기도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모를 정도는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의 필요성을 물으면 굳이 주기도문을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새로운 번역은 일정기간 교회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 다른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두 번째 주기도문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모두를 교체에 따르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극복해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교회의 혼란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주기도문의 새 번역이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의문은 별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새 세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최소한 아이들도 이 기도문을 함께 사용해야 할 권리자들로 인정한다면, 주기도문을 지금 당장 쉽게 번역하여 넓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주기도문에는 현재 우리말에 맞지 않는 표현이 다수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잘 안 쓰는 용어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주기도문에 친숙해지고 나중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며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의 일치된 새 번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고 생각된다.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이상한 번역 내지

*충신대학교, 신약학.

신학적 번역도 들어 있다.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지금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한글 『개역』 성경의 마태복음 본문을 따온 것이다. 그러나 『개역』 전성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오래 전부터 여러 다른 번역 성경이 등장하여, 교단, 신학자, 목회자들에 따라 더 좋은 번역을 선호하는 시대가 우리 나라에도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다른 번역이 일으키는 혼란 상태가 이미 한국 교회에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적어도 『개역』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을 사용하는 교회나 교인은 이미 이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기도문의 일치된 새로운 번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혼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주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일치문제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주기도문에 얽힌 모든 신학적 토론을 젓혀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말에 맞도록 그리고 미래의 교회 주인이 될 새로운 세대에 적합하도록 번역하여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2. 제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의 하루치 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데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나라와 힘과 영광이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3. 번역의 기준

3.1. 원문에 충실히 번역한다.

주기도문의 원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수록되어 전해져 내려왔다. 이 둘은 조금씩 다른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에서 사용하던 주기도문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Nestle-Aland 27판에 수록된 마태복음 6장 11-13을 원문으로 사용하였다.

헬라어 본문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아람어에서 온 것이어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또 시도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 가설일 뿐 원문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새 번역 성경이 나온 1967년 이후 약 10여 개의 번역성경이 특정한 단체 혹은 개인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수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 모두가 다 조금씩 다르다. 위의 제안은 그 중 어느 번역본도 따르지 않았다.

3.2. 신학적 번역을 피한다.

교회가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는 동안 주기도문을 위시한 성경 각 구절에 대한 많은 신학적 토론이 있었고 다음 시대의 번역은 그 토론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어떤 번역 어떤 해석이 옳으며 어떤 것이 잘못인지를 명백하게 결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미리 가로막는 번역을 만들어낸 것이다. 위의 제안은 이런 신학적 번역을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단어 자체의 뜻을 살렸다. 이렇게 하면 이전의 번역에서는 신자들이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을 의미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의 문제지 번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의 제안은 문자적으로 최대한 원문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것이다.

3.3. 원어의 언어 구조를 살린다.

헬라어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번역자는 항상 완벽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을 시도할 뿐이다. 언어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최상의 번역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번역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번역일까? 원어는 글자로 고정되어 있고, 우리말은 변해간다. 습득한 사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어감을

가진다. 지방마다 표현 방법이 같지 않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끼리도 일치하는 번역을 만들어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현대 우리말의 유동성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번역이라도 일시적인 번역이 될 수밖에 없다면, 원어가 가진 언어 구조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최상의 번역이 아닐까? 위의 제안은 이런 기준을 따라서 명사는 명사로, 동사는 동사로 ... 번역하였다. 가능하면 단어 수를 맞추고 음절의 수를 동일하게 하려고 하였다. 어순도 우리말로 살릴 수 있으면 원문을 따랐다.

3.4. 높임말을 사용한다.

성경을 번역할 때 누구나 만나는 어려움은 원문과 우리말의 차이점이다. 헬라어에는 높임말이 없다. 한 종류의 말을 누구에게나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여러 계층의 말이 있다. 친구 사이에 쓰는 보통 말이 있는가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말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 달라 성경을 어떤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한지가 항상 고민거리가 된다. 특히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인 주기도문의 경우 - 하나님은 신앙과 경배의 최고 대상이시기 때문에 - 높임말 중에서도 극존칭이 사용되어야 하고, 이 극존칭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낮춤말과 결합되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말의 표현은 우리에게도 점점 낯설게 느껴지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한다. 위의 제안은 극존칭과 극도로 낮춤말을 피하고 보통 사용하는 높임말을 선택한 것이다.

3.5.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

이천여 년 전의 고대어를 현대 우리말로 바꾼다는 것은 때로는 문화적 차이라는 장벽에 부딪힌다. 주기도문에도 고려해야 할 문화적 차이가 들어있다. 문자적 번역은 이 문화적 차이를 더 크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다. 반면 문화적 차이는 상응하는 문화적 용어를 통해 간단하게 극복된다. 전혀 다른 단어가 동질의 어감, 동질의 내용을 살려주는 것이다. 위의 제안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우리말을 채용한 것이다.

3.6. 우리말을 따른다.

한자가 역사적으로 우리말의 배후에 있고 지금도 한자 없이는 우리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순 우리말을 따랐다. 한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용어는 가능하면 피했다. 한자어에 점점 낯설어지는 다음 세대가 주기도문을 쉽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위에 제안된 번역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4. 제안에 따른 설명

위의 번역을 제안함에 있어서 아래에 첨가하는 설명은 다음의 기준을 따랐다.

원어에서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단어나 구절은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한다.

원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나 구절은 충분히 설명하여 왜 위의 제안을 선택했는지를 밝힌다.

원어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말 표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할 때 충분히 설명한다.

지금까지 번역 출판된 우리말 성경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여 왜 위의 제안을 선택했는지를 밝힌다.

4.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문의 “파텔”(πάτερ, 아버지)은 호격이다. 어떤 번역본은 이 호격의 의미를 더 잘 살리기 위해 “... 아버지여”로 번역해 놓았다(『개역』, 『개역개정』). 그러나 이 번역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주기도문을 높임말로 번역하는 전체 분위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 아버지시여”가 더 좋고 “... 아버님이시여”가 최상이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호격 조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격 조사 없이 호격을 표현할 수도 있다.

“아버지”는 “아빠”, “아버님”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아빠는 아버지의 애칭, 아버님은 그 존칭이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압바”를 살리자면 “아빠”가 가장 좋다. 소리가 똑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우리는 이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아버님”은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격식에 매인 단어여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사용해 온 단어 “아버지”가 가장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늘에 계신”은 동사가 없이 관계대명사로 이끌리는 전치사구로만 되어

있다(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살아나지 않는다. 최상의 번역은 “계신”을 첨가하는 길밖에 없다.

4.2. “당신의”

헬라이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이인칭으로 지시하는 소유대명사 “너의”(σου)가 세 번 사용되었다: “너의 이름”, “너의 나라”, “너의 뜻”이다. 위 제안은 이것을 “당신의 이름이 ...”, “당신의 나라가 ...”, “당신의 뜻이 ...”로 높임말을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다. 우리말은 이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며 윗사람과 대화하는 표현법을 피하고, 직함, 칭호 등과 같은 일반명사를 사용하는 삼인칭 표현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소유대명사를 직역하는 것이 어감상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이 이인칭 소유대명사를 생략하거나(『개역』), “아버지”란 일반명사로 대체하여 표현을 매끄럽게 만들어 놓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 “아버지의 나라가 ...”, “아버지의 뜻이 ...” 이다.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표준새번역』은 “이름을”로, 수동태 동사를 능동태 “거룩하게 하시오며”로 번역해 놓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는 기도자와 하나님 사이에 친근감이 사라질 뿐 아니라 거리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느끼도록 말이 변해가고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 혹은 학생 세대나 어린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반대로 직함,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어색해 한다. 또 윗사람을 이인칭으로 지시하는 표현법도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다. 시일이 더 흘러가고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 일반적이 되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송에는 하나님을 “너”의 높임말 “당신”으로 부르며 친근감을 느끼고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용법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지시하는 이 이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거나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 특히 교회의 주도 세대에게는 - 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살려 놓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4.3.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삼인칭 명령법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 질문은 삼인칭 명령법을 우리말로 옮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원문은 “하기아조”(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만들다) 동사의 부정과거 수동태 단수 삼인칭 명령법 “하기아스테또”(ἀγιασθήτω)이다.

가능한 번역은 “거룩하게 되소서”와 “거룩해 지게 하소서” 혹은 “거룩히 되게 하소서”이다. 전자는 행동의 주체가 삼인칭 명사 “당신의 이름”(τὸ ὄνομά σου)이다. 즉 기도에 사용된 명령법은 직접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후자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신 “아버지”를 행동의 주체로 하는 번역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도록 개입해 달라는 기도이다.

『새성경』은 전자 “거룩하게 되옵소서”를 선택했다. 후자를 선택한 번역은 하나도 없다. 대신 이 두 번역을 묘하게 조화시킨 변형적 번역이 만들어졌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전자를 따라 명령을 받는 주체는 “이름”으로 삼았으면서도 수동태 동작의 실제 동작자를 사람으로 암시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번역했다.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새번역』 성경은 후자를 따라 명령을 받는 주체로 하나님을 삼았으면서도 실제 동작자를 사람으로 암시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고”로 번역해 놓았다.

“하기아스테또”를 ‘거룩하게 여기다’의 피동 “거룩히 여김을 받다”로 번역하여 이 단어에 명령형 “하시고” 혹은 “하옵시고”를 결합하면 기도의 뜻이 달라져 버린다. “거룩하게 여기다”는 지성적 작용으로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원문에 들어있는 동사는 생각, 인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신앙적 행동을 포함한다. 이런 행동을 표현하는 주체가 지성적 존재인 사람뿐이라는 한계 설정도 원문에서는 불가능하다. 어찌면 모든 자연만물이,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대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예수님이 기도문에 하나님을 명령법 동사의 직접적 주체로 알려주셨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수님은 삼인칭 명사를 동사의 직접 주체로 지시하는 명령법을 자주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귀 가진 자는 들어라”가 “귀 가진 자는 듣게 하라”보다 더 좋은 번역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게 하라”보다 더 좋아 보인다.

요약하면, ‘거룩하게 하다’의 수동태를 ‘거룩하게 되다’로 번역하고 명령을 의미하는 높임말 “거룩하게 되소서”를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실제 동작자는 누구인지 이 기도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은 해석과 주석의 문제지 번역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때도 난관은 있다. 처음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기도자가 그 첫 기도에서는 기도의 대상에게 직접 무엇을 호소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동사의 주체로 삼아 기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 의문은 헬라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상의 번역은 원문이 가진 의문을 해결하거나 제한하고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남겨 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의문도 해석과 주석의 영역에 맡겨진다.

『공동번역』은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로 바꾸어 버렸다. 이것은 설명적 번역이며, 신학적 번역으로서 원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아주 좁게 축소한 것이다. 결코 좋은 번역은 아니다.

4.4.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첫 번째 기도문과 똑같은 문제가 이 두 번째 기도문에도 연결되어 있다. 즉 첫째, 대부분의 번역이 “당신의”를 생략했거나(『개역』, 『표준새번역』) “아버지의”로 바꾸어 놓았다. 또 ‘오다’의 삼인칭 명령법 “오라”(엘테또, ἐλθέτω)를 ‘오게 하다’의 명령법 “오게 하시며”(『공동번역』), “오게 하소서”(『현대인의 성경』), “오게 하옵시고”(『표준새번역』)로 번역해 놓았다. 『개역』, 『개역개정』, 『표준새번역』은 ‘오다’는 쉬운 동사를 피하고 굳이 ‘임하다’를 사용하여 “임하옵시며”, “임하게 하시오며”로 번역했다. 아마 ‘임하다’는 동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대하거나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의 집에 오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뜻을 살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헬라어 동사 “에르코마이”(ἐρχομαι)에는 이런 제 삼의 의미가 없다. 즉 ‘오다’의 명령형 “오소서”는 충분히 좋은 번역어이다.

『개역』의 “나라이”에 들어 있는 “-이”는 옛말에 사용되던 주격 조사 ‘히’가 현대어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가’로 수정되지 않고 ‘-이’로 잘못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의 성경』은 “속히”를 첨가하여 “속히 오게 하소서”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조급함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4.5.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헬라이어 기도문 순서를 따르면 이것이 세 번째 기도문으로 나오고 “하늘에서처럼 땅위에서”는 그 다음에 나온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상적인 문장으로 만들자면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다.

위 3) 4)항에서 취급한 것과 같은 번역상의 문제들이 들어있다. “σου”를 생략한 번역이 있는가 하면, 이 단어를 “아버지”로 바꾼 번역도 있다. 위 제안은 이것을 “당신의”로 번역한 것이다.

대부분의 번역성경이 삼인칭 명령법 “게네테또”(γενήτω, 되라, 이루어지라)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등으로 번역하여 기도가 직접 하나님의 움직임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 『새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 이루어 주옵소서”로 더 고쳐놓았다.

『개역』만이 “이루어지이다”고 삼인칭 즉 “뜻”이 주체가 되도록 번역해 놓았다. 위 제안은 앞의 기도와 표현을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지소서”로 번역한 것이다.

4.6.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 문구는 헬라이어 원문에는 세 기도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기도문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앞의 두 기도의 한정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 제안을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 ..”

하지만 시처럼 쓸 때에는 이런 배열이 별 문제가 없지만 교회에서 소리를

내며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자칫 별 의미 없이 공중에 떠있는 구문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일단 위 제안에서는 소리를 쉽게 낼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번역들처럼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어떤 번역은 한 발 더 나가 이 문구를 이용하여 복문으로 이루어진 문장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로 만들었다. 불필요한 확대라 생각된다. 『개역』의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는 명백한 오역으로 보인다. ‘이루다’를 사용하려면 주어가 “뜻”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새성경』처럼 “뜻을”로 바꾸어야 한다.

위 제안은 “에피 게스”(ἐπι γῆς)의 의미를 살려 “땅위에서도”로 번역한 것이다.

4.7. “밥을”

모든 번역 성경이 이 자리에 “양식을”로 번역해 놓았다. 원문은 “빵을”(ἄρτον, ἄρτον)이다. 위 제안은 이것을 “밥을”로 번역한 것이다.

빵은 밀가루 혹은 다른 곡식의 가루를 반죽하여 만드는 것으로써 밥은 아니다. 더욱 양식에는 포함되지만 양식이 곧 빵은 아니다. 헬라어에 양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있다. 이천여년 전에 유대인들이 - 물론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 주식으로 사용하던 빵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빵을 주소서”로 직역하면, 문화적 거리감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현실성이 약한 기도가 된다. 처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던 시기에 빵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빵은 간식 정도의 의미가 있다. 아직은 빵 즉 주식이란 어감이 낯설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주식은 쌀이다.

이 문화적 간격을 줄일 방법을 모든 한글 번역성경은 밀이나 쌀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 “양식”으로 선택하는 것에서 찾았다. 양식은 먹을 것이란 의미는 잘 나타내지만 금방 먹을 수 있는 한 조각 빵이 필요하고 이 빵을 하나님께 공급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다는 의미는 잘 살아나지 않는다.

빵을 양식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과 현대어 주기도문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그리고 문화적 간격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다면 좀 더 직접적인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즉 밀과 관련된 것을 쌀과 관련된 것으로 바꿈으로써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우리의 주식, 그것도 당장 입을 벌려 먹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것이란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빵과 비슷하지만 ‘떡’으로 번역하는 것은 역시 거리감이 있다. 떡은 우리에게 주식이기보다는 별식이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에서 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음식은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밥이다. 양식이라는 넓고 막연한 개념보다는 밥이 빵이 가진 현실적, 문화적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위 제안은 “밥을 주소서”로 번역한 것이다.

4.8. “오늘”, “하루치”

“하루치”로 번역한 단어 “에피우시온”(ἐπιούσιον)은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단어이다. 주된 논쟁은 이것이 오늘을 위한 것인지 내일을 위한 것인지에 모아졌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날 필요한 하루치 만나를 모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에 필요한 빵 즉 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한글 번역성경은 두 종류로 나뉘어 있다. “일용할” 혹은 “필요한”으로 옮긴 것이다. “일용할”은 원어의 의미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번역이며 “필요한”은 이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한 광의적 번역이다. 위 제안은 이것을 “하루치”로 번역한 것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을 생각하면 오늘을 위한 빵인지 내일을 위한 빵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도문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루치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루치 빵은 내일을 위한 것이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루치는 오늘의 삶을 위한 빵일 수도 있다. 기도문은 매일 필요한 빵 즉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비는 애절한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개역』은 오늘의 의미를 여러 날로 확대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번역해 놓았다. 『현대인의 성경』은 “날마다”로 번역했다. 역시 하루만이 아니라 그 연속을 살리기 위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4.9. “빛”, “빛진 사람”

원어인 “오페일레마따”(ὀφειλήματα)는 빚을, “오페일레타이스”(ὀφειλέταις)는 빚진 사람들을 뜻한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이것을 “죄”, “죄지은 사람들/이들/자들” 혹은 “잘못”, “잘못한 이들”로 옮겨 놓았다. 『새성경』은 원어에 충실하게 빛, 빛진 자로 번역했다.

죄 혹은 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다. 이곳에 사용된 원어는 문자적으로 남에게 물질이나 금전상 빌린 것, 그래서 갚아야 할 것, 채무로서의 빚을 뜻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빚이란 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병행구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눅 11:4)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빛은 죄를 대신하는 비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빛을 죄로 번역하고 나면, 꼭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외에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빛으로 문자적 번역을 하면 죄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빛도 이 기도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죄로 명시하는 번역은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제안은 이 축소를 피하고 혹시 내포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다른 의미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하여 “빛”, “빛진 사람들”로 번역한 것이다. 죄 이외에 어떤 다른 빛이 포함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과 주석의 문제이다.

4.10. “우리도 용서한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이 구절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기도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 것과 비교되고 있다. 모든 신학적 토론을 뒤로 일단 쫓혀두고 문법적 해석만을 따져본다.

시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용서는 과거에 끝난 일이다(“아페카멘”, ἀφήκαμεν). 이 과거의 행동과 비교하며(“우리에게 빛진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아페스”, ἄφεσις)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모방하는 표현이 “우리도”(καὶ ἡμεῖς)에 들어 있다. 모든 한글 번역성경이 이것을 빠트려 놓았다 위 제안은 이것을 바르게 번역한 것이다.

4.11. “우리를 시험에 데려가지 마시고”

『개역』과 『공동번역』은 “유혹”으로 번역하여 기도문에 나오는 단어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번역하면 동사 “에이세넝게스”(εἰσενέγκης, 데리고/가지고 들어가다)가 잘 번역되지 않는다. 동작자는 2인칭으로 표현된 기도의 대상 즉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두 번역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혹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로 번역하여 유혹에 빠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막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해석을 첨가한 것이다. 원문의 뜻을 다르게 만들어 버렸다.

나머지 번역들은 “시험”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동사를 번역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꼈는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현대인의 성경』),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표준새번역』) 등으로 번역해 놓았다. 역시 시험에 빠지는 것 혹은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의 탓이요 이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해석이 깔려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시험에 빠진다’의 주어를 아예 “우리가”로 바꾸어버렸다.

원어 “에이스 피라스몬”(εις πειρασμόν)은 직역하면 “시험 안으로”이다. “시험”이란 단어는 이것이 긍정적인 성격 즉 시련인지 부정적인 성격 즉 유혹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내포된 의미는 단지 시험이라는 것뿐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말 “시험”은 원어에 아주 상응하는 단어라 생각된다.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동작자는 기도의 대상자이다. 물론 부정어 “메”(μή)가 붙어 있어서 기도의 내용은 “시험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라는 청원이 된다. 이 시험이 시련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중립성을 가진 시험인지는 해석과 주석의 과제이다. 기도자의 앞에 닥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혹은 단련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유혹이라면 ‘이런 유혹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곳의 여러 교훈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사람은 이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 끝에 실패와 좌절이 놓여 있는지 성공과 감사로 끝날 것인지 역시 전혀 알지 못한다. 삶의 과정에서 어느 것이든지 우리 인간에게는 고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한 순간 밥을 하나님께 청원하듯이 평안하고 순탄한 길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 이 기도가 아닐까? 어쨌든 이런 것은 해석이며 주석이지 좋은 번역은 아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해 놓으면 이런 이해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게 된다.

4.12. “오히려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 기도문은 앞의 기도문과 반의적인 뜻을 강조하는 “알라”(ἀλλά,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다. 『개역』은 이것을 “다만”으로 『표준새번역』은 “도리어”로 옮겼지만 다른 번역들은 생략해 버렸다. 우리말에 이 단어가 없어도 반의적인 의미가 잘 살아난다고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헬라어 문장도 이 용어 없이 결합될 수 있다. 문장 자체의 뜻이 반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데려가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만 말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를 사용하심으로 그 반의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도록 배려하셨다.

악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서 중성인지 남성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 중성이라면 “악한 것” 즉 “악으로부터 건져주소서”란 기도가 되고 남성이라면 “악한 사람” 즉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소서”란 기도가 된다. “악으로부터”라고 번역한다면 이 악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관한 토론이 남는다. 원문에도 남아 있는 질문을 굳이 제거하는 것은 좋은 번역이랄 수 없다.

4.13. 송영

“나라와 힘과 영광이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는 사본학상 원문에 들어 있지 않던 것이라는 판정을 받고 있다. 교회에서 누구나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로 사용하지만 헬라어 성경에 이 문구는 꺾쇠묶음에 쌓여 인쇄되어 있다. 원문에 없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인쇄해 놓는다는 표시이다. 한글성경도 『새성경』만 제외하고 모두 괄호로 묶어 놓았다. 사본학의 판정을 따르는 것이다.

『새성경』은 영국 흠정역을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본학상의 판정이 무엇이든지에 상관없이 이 부분을 원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없는 중요한 사본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생각에는 교회가 천 수백 년 동안 주기도문의 끝으로 사용해온 이 문장을 간단하게 제외해 버리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는다. 이 문구는 산상설교 전체의 내용과도 잘 어울리고 주기도문의 배경으로도 아주 적합하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어서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마감하는 적절한 귀결송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주님의 기도를 “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소서”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밋밋하고, 아멘만 붙이는 것도 좀 멋쩍어 보인다. 웅장한 찬송으로 끝맺는 것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데 더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5. 맺는 말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헬라어와 한국어, 그리고 이 두 언어에 얽혀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누구라도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번역할 수 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혼자 사용할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바르게 번역된 것이라면 한 모임, 한 교회 전체가 새로운 번역을 익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을 사용하는 한국 기독교인 전체가 새로운 번역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치 기독교인의 표식인 것처럼 사용하고 가르치는 것은 현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오래 동안 성경의 새로운 번역 필요성을 느꼈고 홍보했고 새로운 번역을 만들 시도를 했지만 전 기독교인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데는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얼마 전에 겪어보지 않았던가!

제안된 내용과 같이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해 보았지만 이것이 최상의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 개인에게는 최상의 번역으로 보일 뿐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번역과 비판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번역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그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여론과 분위기 조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